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 개최

세계 저명 언론인과 석학들이 밝힌 ‘신뢰·기술·독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는 국내 유일의 저널리즘 관련 국제 컨퍼런스로서, 2017년 처음 개최된 이래 두 번째로 열렸다. 국내외 저명 언론인과 전문가 및 석학들의 강연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저널리즘과 신뢰’, ‘기술과 뉴스미디어’, ‘독자와 비즈니스’ 등 세 개의 세션이 열렸다. 본격적인 컨퍼런스에 들어가기 전 ‘평화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공동저자인 톰 로젠스틸(Thomas Rosenstiel) 미국언론연구원

(API) 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저널리즘의 영원한 원칙인 진실 보도에 대해 강연했다.

2세션에서는 로젠탈 알브스(Rosenthal Alves) 텍사스대 나이트 저널리즘 교수가 디지털 기술혁명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3세션에서는 루시 킹(Lucy Keung)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연구위원이 “기성 미디어는 콘텐츠 혁신만큼이나 조직 혁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명제를 갖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세계 유수 언론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사의 디지털 환경 대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평화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는 제이크 린치(Jake Lynch) 시드니대 교수와 문정인 대통령 특별안보보좌관(연세대 교수)이 발표에 나섰다. ■



©한국언론진흥재단